



종계업 및 부화업 실태조사 추진

축산법 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종계업과 부화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등록종계장 및 부화장이 많아 질병발생 및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종계장들은 시설 및 질병방역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부화장들은 종란 및 병아리 유통질서가 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계검정마리수·유효종계수 등 종계관련 통계와 병아리 생산·판매수 등 부화관련 통계 등의 신뢰도가 떨어져 양계산물의 수급조절 애로는 물론 '97. 7.1이후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시대에 양계산업의 위상이 걱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회는 6월 25일까지 모든 종계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등록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6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니 사양가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5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병아리 입추를 앞두고 입추열기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수입종란 등 병아리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어 300원 이하의 병아리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보로 등 질병이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열주체에서는 큰 닭 소비가 잘되는 여름철에 대비해 출하체중을 높여 닭을 사들이고 있어 출하체중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금 결제일이 90일 이상 늦어지면서 계약사육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분과위원내 계열주체 소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결제지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집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채란분과 위원회 개최

5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인연합회의 내부 갈등과 난가고시 체계의 변화 등으로 난가고시가 더욱 혼미하게 전개됨에 따라 농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20원의 DC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일부 종계장에서 발병이 되었던 가금인 푸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 김기석 계역과장을 초청해 가금인푸루

엔자를 중심으로한 양계질병 예방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계란유통문제가 제기됨에따라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노수현 사무관을 초청해 집하장 건립 계획 등을 위주로 계란유통에 따른 국가시책을 듣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종계분과 위원회 개최

5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산란계병아리 가격이 고가로 유지되면서 평균 800원대를 기록함에따라 이같은 현상을 생산성 저하로 기인하고 이에대한 자구책을 논의하는 한편, 육계의 경우 수입종란이 이미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병아리가격에는 다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입추열기 과열조짐이 보임에따라 올 복경기 전망이 불투명 할 것이라 고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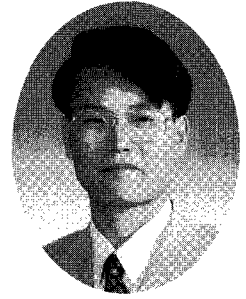
또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이 모두 살처분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논의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볼때 부화장 등록은 거의 이루어진 반면 종계장 등록은 50%에 가까운 농장들이 미등록 상태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승진 및 신입직원채용

본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총무부에 근무하는 황일수(전 서기)씨를 경영지도과 과장대리로 승진 발령하였으며, 5월 9일부터 편집부에 김



△황일수 대리



△김중준

중준(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씨를 신입직원으로 채용하였다.

(가)본회 양평육계분회

창립총회 및 체육대회 개최



양평육계동우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본회 양평육계분회(분회장 지충근)가 지난 29일 옥천타운(경기도 양평 소재)에서 최원악 육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인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 및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